

천안함에 대한 모독, 이제 그만하라



문형철 기자
국방 칼럼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던진 '천안함 함장이 당시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망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지동설과 진화론을 거부하던 맹신론자들처럼 천안함 음모론자들에게 사실과 과학을 근거로 한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된 11년 전보다 이들의 감정적 선동과 폭력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바다 위에 섰던 젊은이들만, 양쪽으로 나뉜 국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한 시사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 그분도 승진했다"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 함장은 앞길에 창창하던 해군 장교였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한직으로 물러났다. '승진'이 아닌 '진급'도 전역하던 당일 대령으로 명예 진급한 것이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냉혹한 법조인이 라 그랬을까. 타인의 아픔을 쉽게 내뱉었다.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도 육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저본적은 없다.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자 또한 지휘관 직을 여러차례 경험해 봤다. 훌륭한 지휘관들의 경우, 전역을 한 뒤로도 부하였던 간부와 병들이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다. 최 함장 또한 다르지 않았다. 부하들은 굳건하게 그를 따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은 하나같이 "우리 함장님이다. 우리가 살아서 생환하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었다. 이런 지휘관에게 책임을 논할 수 있겠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표했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모멸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됐다. 친여당 성향인 데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여당은 언제쯤 돼야 기 쯤 펴고 여당 노릇 좀 할래나"라며 최 함장에게 "당장 군법회의로 보내야 할 놈을 진급시켜서 무사 전역시켜 놓으니 이따위로 기고만장이지"라고

모멸적 발언을 퍼부었다. 최 함장이 고소를 언급하자 그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최 함장을 향한 모멸적 발언은 계속 이어져 갔다.

최 함장이 고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서울 휘문고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자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고 모멸의 바톤을 이어갔다.

천안함 생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건은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부보다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전우들에게 한 자복을 입히고 정치적 이미지로 활용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진상규명위는 북한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내렸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문제를 끝내야 할 국방부가 군말없이 진상규명위를 따랐다는 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천안함 전우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 만큼 아픔을 지닌 대한민국 시민이다. 모든 희생자들의 상처에 진영간의 불화살을 박아버리는 야만적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captinm@metroseoul.co.kr

부동산 투기와 칼바람



기지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칼바람' 정계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떠들썩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총 12명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투기 사태는 지난 4월 재보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석 달 여 만에 다시 부동산 투기 건이 화제가 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당 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로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것(live)'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세력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했다. 이들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 등의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마저 부동산 투기 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겼다. 이제는 투기 논란으로 바닥을 친 정책 신뢰를 공급대책 강행으로 만회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점에 대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 대표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계에 불고 있는 부동산 칼바람이 어디까지 번질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공정하지 않은, 불평등한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확대 정책은 물론 투기 사태 연루자를 심판하기 바란다.

/ywj964@

오늘의 운세 6월 14일 (음 5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48년생 마지막 수비자가 되는 히든카드가 있다. 60년생 돈을 벌기위한 방책으로 영업장 대청소부터. 72년생 뒤숭숭하면 잠자는 머리방향을 바꿔보라. 84년생 어려운 계약이 쉽사리 성사되는 기쁨이.



37년생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49년생 올바른 처신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61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흠직한 결과. 73년생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니 주의해야. 85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38년생 수업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 5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2년생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해가 되니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74년생 인연에서 상황의 반전이 생김. 8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39년생 집안분위기가 소 각각 말 각각이다. 51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 63년생 승진 공부하는 책상을 서북향으로 배치해보라. 75년생 말뚝에 굴러도 이승이 좋으니 힘내라. 87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노력.



40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5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생각. 64년생 몸이 피곤한 날이나 재물 운은 있다. 76년생 욕심을 부리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8년생 만물이 생동하니 나도 행동을 해야 한다.



41년생 인생사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53년생 여우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65년생 조인도 들을 사람에게 해가 빛이 난다. 77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89년생 막걸리 거르려다 지게미도 못 건진다.



42년생 뒤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 있다. 54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모두가 힘들다. 66년생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을 새겨들여라. 78년생 여름이 가면 부체는 제 역할이 다한 것. 90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음이다.



43년생 누워서 떡 먹다가 결국 체한다. 55년생 친척의 초대로 즐거운 날. 67년생 아작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79년생 자녀가 학습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9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순서대로 차분히 행동하라.



44년생 내 땅 까마귀는 검어도 반값다. 56년생 삶은 평화로우나 마음은 지루하다. 68년생 도움을 줬던 친구가 은혜를 갚으러 오니 보람을 느낀다. 8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 버려두자. 9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인데.



45년생 날 도깨비가 복을 부른다. 57년생 아직은 꿈을 포기하지 마라. 6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 써 보라. 81년생 두부 먹다가 이 빠지면 바빠도 운전 주의. 93년생 뒤는 높 위에 나는 높 이었으니 분발해야 할 것.



46년생 믿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58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70년생 가는 사람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8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하라. 94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간다.



47년생 소문난 재물은 아니지만 오전부터 황재수. 59년생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71년생 고액과외보다 자녀와 같이 공부하는 자세를. 83년생 굽이 높은 신발은 자제해야. 95년생 아침부터 냉수 먹고 이슈는 것처럼 실속 없다.



김상회의四季 증시를 보는 눈

지난해 최고의 화제 중 하나는 주식이다. 사람들 입에서 주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 주식이 화제를 몰고 오면서 누구나 주식투자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필자 지인 중에도 코스닥은 뭐고 나스닥은 뭐냐 묻는다. 증권시장과 관련된 큰 지식은 없지만 필자가 과거 금융인으로 있었을 때 조금 알던 상식으로 설명해 주곤 했다.

우리나라 증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둘로 나뉜다. 코스피는 우리나라 제1 증권시장인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증시는 코스피를 의미한다. 코스피에는 한국의 대표 우량기업들이 대부분 속해있다. 1980년 1월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지수를 계산하는데 올해 초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즉 주식 총액은 2200조 정도이다.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코스피보다 수월하게 증시에 등록할 수 있게 한 증권시장이다. 기술이 뛰어나거나 성장성이 좋으면 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에서 따온 것이다.

미국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을 이해하면 큰 틀이 보인다. 다우지수는 뉴욕 증시의 평균주가를 말한다. 뉴욕 증시에 등록된 우량기업 30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이다. 다우지수는 세계의 모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나스닥은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속해있는 시장이다. 벤처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대표성이 워낙 대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등의 거대한 기업들이 나스닥에 있다. 주식시장이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식을 모르고 살기 힘든 시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린다**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동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7		
			9		
3		5	4		8
		2	9	1	3
			7		
1	2				6 5
		3			1
6	7			2	3

3	7				4
6					9
			2		
			5 3		
			1	2 9 5	
7			6 1		
		4			2
	1			5	3

정답

8	7	6	1	8	9	9
9	6	1	9	2	9	8
9	9	8	8	7	6	2
8	1	7	9	9	6	8
9	9	8	1	9	6	2
6	2	9	8	8	7	9
2	8	9	7	9	9	1
7	8	9	2	6	1	8
1	9	6	9	8	8	7

9	8	6	9	8	7	9	1	2
2	9	9	9	8	1	7	6	8
8	7	1	9	2	6	8	9	9
9	6	2	8	1	9	9	8	7
7	1	9	8	9	9	8	2	6
8	9	8	7	6	2	1	9	9
9	9	9	2	7	8	6	8	1
6	8	8	1	9	2	7	9	
1	2	7	6	9	8	9	9	8

과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817호	